



# “혼자 살다보니 말 좀 하고싶어서요”

SBS '토크가 하고 싶어서' 이동욱

## 4일 방송 출발...“첫 게스트 공유, 내가 직접 섭외” ‘프듀X’ 조작 논란엔 “아이들과는 지금도 연락, 안타깝다”

“안녕하세요.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에서 ‘이동욱’을 맡은 이동욱입니다. (웃음)” 배우 이동욱(38)이 오는 4일부터 드라마가 아닌 자기 이름을 내건 토크쇼 SBS TV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호스 강호동 씨와 ‘강심장’도 했었는데 이번엔 혼자 한다”며 “부담도 되지만 제작진과 다른 출연진을 믿고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은 2일 목동 SBS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예능이 처음은 아니다. ‘룸메이트’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고, 강호동 씨와 ‘강심장’도 했었는데 이번엔 혼자 한다”며 “부담도 되지만 제작진과 다른 출연진을 믿고 한다”고 말했다.

가 섭외했다. 이 프로그램을 하려던 와중에 공유와 상의를 했는데 공유가 ‘만약 이 프로그램 하게 되면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싫다구나’ 하고 낚아챘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하는 장도연, 조정식이나운 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저를 끌고 가다시피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다”며 “두 분 다 상황대처 능력과 센스, 언변이 좋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동욱은 “공유가 나와서 자연스러운 녹화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유는 내



한편, 이동욱은 자신이 진행한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엑스(X) 101’이 투표 조작 논란을 겪는데 대해서는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내 일을 멈출 수는 없다”며 “아이들(출연했던 연습생)과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4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 박지원-이재오 ‘설전’ ... 더 독해지는 ‘더 라이브’

KBS 1TV 밤 10시55분 방송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새달을 맞아 더 다양한 코너와 새로운 출연진 합류로 개편한다고 2일 소개했다. 우선 ‘이슈더 이슈’ 월요일 브리퍼로는 옥유정 KBS 기자가 합류한다. 그는 ‘KBS 뉴스 9 팩트체크K, 땀글 읽어주는 기자들’ 등에서 활약 중이다. 또 문화평론가 김갑수, 음악전문작가 배순탁이 만나 딱딱한 시사 이슈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코너 ‘음악이 빛나는 밤에’(가제)도 선보인다. 아울러 경제 팟캐스트의 대명사 ‘신과 함께’ 김동환 소장도 정영진도 합류하는 등 팟캐스트와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또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의 계절, ‘더 라이브’는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심을 짚어보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제)를 방송한다. 색다른 정치평론도 계속된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이재오 전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이 맞붙는다. 원로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치 현안들, 그리고 정치계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은 해설까지 들어볼 수 있다. 한상현 아나운서와 팟캐스트 진행자 최옥이 진행하는 ‘더 라이브’는 월요일은 밤 11시, 화-목요일은 밤 10시 55분 방송. /연합뉴스

## ‘후계자들’ 성현아 “진정성 담아 정말 열심히 했다”

배우 성현아(사진)가 TV조선 새 예능 ‘손맛 전수 리얼리티-백년의 맛, 후계자들’(이하 ‘후계자들’) 출연을 두고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성현아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의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링거를 맞고 약을 먹으며 방송한다. 진정성과 예능이 합쳐진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팜과 정성이 담겼다”고 말했다. ‘후계자들’은 노포 식당에서 비법을 전수하고 최종 후계자로 선정된 1인의 장업을 지원하는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성현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소머리 손질까지 했다며 “쉽게 먹는 국밥이 얼마나 정성이 많이 가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힘든 시련을 겪고 재기를 꿈꾸는 세 명의 연예인과 어려운 환경 속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세 명의 비연예인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실컷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식탁의 기사(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45 살릴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지도의 뒷면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2019 전국 어린이 판소리대회			00 뉴스브리핑
[3]	20 아생영(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 사랑(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소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식탁의 기사	55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00 VIP
[11]	35 UHD 스포터 40 바다 건너 사랑	1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	10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작 다큐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마사와 곰(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물방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땡땡 땡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카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한번쯤은, 하염없이 몽골 -바람의 전설을 찾아서>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삭혀야 제맛, 발효기행 2부 스님과 장독대>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	16:40 땡땡땡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일(음 11월 7일 甲戌)** ☎ 010-9790-8237

36년생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 갈 것이다. 48년생 지나치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60년생 가장 용이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낫다. 72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84년생 뜻밖의 일에 관련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96년생 잡자극 있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5, 31

37년생 대마루판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9년생 말은 아끼되 무겁게 하는 것이 낫다. 61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73년생 가능성이 약하니 기대는 하지 말라. 85년생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이다. 97년생 이루는 것 못지않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1, 21

38년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겠다. 50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62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철저해 대처하라. 74년생 때를 만났으니 한껏 포부를 펼쳐도 된다. 86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시 다 알고 있으니. 98년생 평생사대로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85, 08

39년생 대단히 흥겨운 날이 될 것이다. 51년생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행복을 기약 하리라. 63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75년생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리라. 87년생 이제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99년생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행운의 숫자 : 65, 42

40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 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52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두는 입장이 된다. 64년생 맹목적이러면 무리함이 따를 것이다. 76년생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시간에 쫓기게 되리라. 88년생 할 일이 쌓여 있으니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겠다. 00년생 한 쪽으로 치우친 상태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6, 81

41년생 영향력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형상이니 대응해볼 만하다. 53년생 서두르다 보면 실패하게 되니 급할수록 돌아 가라. 65년생 애지중지 하여 왔던 것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7년생 용기는 훌륭하나 반응이 실통치 않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89년생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조처가 절실하다. 01년생 대세는 기운있다. 행운의 숫자 : 24, 74

30년생 하향 조절하는 것만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42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으니라. 54년생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역량을 하게 되리라. 66년생 실제로 접하면 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 78년생 완벽을 추구하기란 힘들 것 같다. 90년생 상대의 입장에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서 처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울린다. 행운의 숫자 : 51, 96

31년생 분주한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여러 가지 보인다. 43년생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파악할 수 있다. 55년생 행동력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리라. 67년생 석연치 않다면 중단해도 무방하다. 79년생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 이 있는지. 91년생 애매하다면 흥이나 흥백은 확실히 가 리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8, 94

32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44년생 궁극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셈이 된다. 56년생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조처하라. 68년생 미련 없이 비운 다면 머지않아 재워질 것이다. 80년생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 해야겠다. 92년생 냉철하고 고강한 판단력이 강한 추진력을 갖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1, 15

33년생 예비문의 확보가 꼭 필요한 판세에 놓여 있다. 45년생 절대적이라고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57년생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69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 된다. 81년생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 해서 행복해지겠다. 93년생 실효적인 제의를 하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4, 13

34년생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46년생 애매하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백 번 낫다. 58년생 힘들더라도 시종일관하여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70년생 통제할 줄 알아야 완성될 것이다. 82년생 학수 고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94년생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59, 64

35년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보자. 47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59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다보라. 71년생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보느니라. 83년생 연결 되어 있으니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95년생 함께 한다면 부가적 이익이 상당히 크다. 행운의 숫자 : 07, 61